



엘리아를 돌보신 하나님

열왕기상 16장 29절 ~ 17장 24절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던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그 우상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위해 ¹⁾단을 쌓고 또 ²⁾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합왕에게 ³⁾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아에게 아합을 피해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아는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보내 주셔서 엘리아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 후에 시냇물이 마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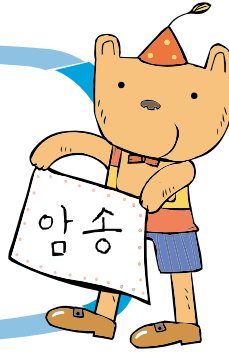
“사르밧으로 가거라. 그곳에 사는 한 과부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¹⁾단: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아 올린 곳

²⁾아세라: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고 숭배하던 여신

³⁾진노: 매우 화가 남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5)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말하였습니다.

“마실 물과 가지고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지만 저에게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뿐인 걸요.
이것만 먹고 나면 나와 내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을 계속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그 이들은 엘리야와 함께 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공부

경고받은 아합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지은 죄를 아래에 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은 아합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엘리아를 돌보신 하나님

그릿 시내가로 피한 엘리아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까마귀는 왜 왔을까요? 답을 골라 보세요. ()

①



지나가다가 분쌍해 보여서 왔어.

②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도와라고 하셨어.

③



먹다가 남아서 주려고 왔어.

그릿 시내가 다 마른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아를 어떻게 돌보아 주었나요?

여호와께서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에 하시는도다 (시편 33:18~19)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돌보아 주십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새와 풀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빈 칸에 써 보세요(마태복음 6:25~34).



공중의 새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

.....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찮은 들풀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

.....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래도 먹이십니다.
큰 고래를 어떻게 먹이실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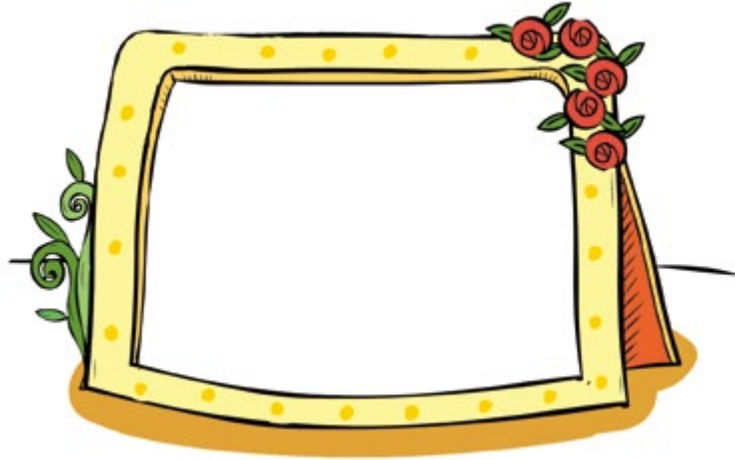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자기를 그리거나 사진을 붙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 주시는 것들을 써 보세요.

몸



영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예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는 몇 군데 모임에 참석한 후 교회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귀족인 바브린스키 씨가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테일러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런던에 있는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저하고 함께 앉으실까요?”

두 사람은 함께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브린스키 씨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에게 수표를 주었습니다.

“이거 작은 돈이지만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도록 하세요.”

테일러는 수표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표는 50파운드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돈으로 수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바브린스키 씨 혹시 5파운드를 잘못 쓰신 것 아닌가요?”

“그렇군요. 5파운드를 잘못 썼군요. 하지만 50파운드 모두 다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테일러가 교회에 돌아와 보니 모두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보낼 돈이 필요한데 49파운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테일러는 바브린스키 씨가 준 돈을 꺼내 책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